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에디터: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골라내는 사람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2년 전 센트럴파크에서 읽겠다는 생각으로 샀고, 이고지고 갔지만 다른 책을 읽었습니다. 지금 눈에 들어오는걸 보면, 책에도 때가 있나보네요.
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,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읽어주세요.
<i>브로드컬리는 '3년 이하' 시리즈로 알려져 있는 출판사입니다. 빵집, 카페, 민박, 서점과 같은 로컬샵을 연구하고, 인터뷰를 기반으로 책을 만듭니다. 가장 유명한 책은 '서울 3년 이하 서점들: 솔직히 책이 정말 팔릴 거라 생각했나?' 입니다. ('25.9 알려진 판매량 기준)</i>
p.113 남이 궁금해할 것 같은거 대신, 내가 궁금한 걸 취재하세요. 궁금한 걸 취재하면 그 과정이 정말 재밌거든요.
p.123 한편 저는 편집장 이전에 로컬 숍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보니, 독자의 관심과 동떨어진 내용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팀원들이 첫 독자가 되어 재미없는 부분들을 알려줍니다. 결과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재미있게 읽을 만한 글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편집장의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. 재미가 있어야 읽힐 수 있고, 읽혀야만 하고 싶은 말을 독자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요.
p.136 (브로드컬리의 네 번째 책을 내기 직전, 월 매출이 29만원이었던 때) 처음으로 디자인에서 손을 뗐어요. 그전까지는 '잡스병'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, 발행인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. 디자이너에게 전권을 주고 판형을 바꾸는 등 리뉴얼을 진행했어요. 매출이 20배 오르더군요.
p. 145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라는 전제로 책을 만든다. 내가 그 돈을 내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알게 된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훨씬 보람 있고 서로에게 좋을 것
책이 좋았던 이유와 감상에 대해 말해주세요.
p.122 로컬샵, 가게대한 입체적인 대화. '오, 정말?' 보다는 '헐, 진짜?' 왜 그렇게(까지)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일 것
내가 관심있게 보는 곳들의 공통점은 고민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.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곳인데, 최근에는 더운 여름이 비수기인 초콜릿 가게에서 내놓은 여름 에디션, 베이글 가게에서 플로리스트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됨
상품과 가격표 뒤에 있는 이야기와 고민을 구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사람들. 사실 경영 컨설팅 보고서는 진짜 재밌는 책이나 다름없는데, 이 편집장도 경영컨설팅 → 리서치센터를 거쳐온 사람이란 점에서 직업적 특성(...)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음. 한편 중요한 점은, '독자(=클라이언트)'의 관심과 동떨어진 내용은 빼야 한다는 것. 내부 리뷰가 훨씬 가혹하지만, 반드시 필요함.